

○ 고난의 황무지에서 피어난 성실과 인내의 열매

허주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 신약학

장 칼뱅(1509~1564)의 생애와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저술가 칼뱅’은 절대적이다. 오늘 우리가 칼뱅의 목회와 신학을 기념할 수 있는 것도 그가 집필한 책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칼뱅 전집 *Calvini Opera*」에는 칼뱅의 저술이 성경주석, 기독교교리, 기독교(개신교)변증서, 교회와 교리 예전, 강해설교, 소논문, 편지, 시 등 10개 분야로 편집되어 있다. 55세의 짧고도 험난한 생애를 고려할 때 칼뱅의 저술활동은 경이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사학자 필립 샤프가 칼뱅의 저술활동에 대해 “그 방대한 양과 중요성에 있어서 고대나 근대의 어떤 교회의 저술가도 미치지 못할 수준이다.”고 한 것은 과장이 결코 아니다. 주목할 것은 칼뱅이 끊임없는 사적, 공적 고난의 상황들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필과 출간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칼뱅의 저술 중 가장 기념할 만한 것은 다섯 번에 걸쳐 개정 보완된 「기독교 강요」와 수년에 걸쳐 집필된 성경주석서들이다. 그런데 칼뱅의 강요와 성경주석서들은 동일한 목적에 따른 칼뱅의 열정과 수고의 열매였다. 즉, 칼뱅은 자신의 강요와 주석서들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

씀인 성경을 더 잘 깨달아 바르고 분명한 신앙고백 위에 성도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강요의 최종판 서문 및 주석서들의 ‘헌정서’ 참조). 말하자면 갈뱅은 자신의 ‘갑작스런 회심’을 경험한 이후(1532~3년경), 종교개혁 후발주자로서 교회의 개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신념에 따라 자신의 삶과 목회사역을 한평생 동안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것이다. 갈뱅의 강요와 주석서들을 연대기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
- 1539년 [기독교 강요 개정 2판]
- 1540년 로마서(신약성경의 첫 주석)
- 1543년 [기독교 강요 개정 3판]
- 1546년 고린도전후서
- 1548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이상, 한 권의 바울서신 주석으로 출간), 디모데전후서
- 1549년 히브리서, 이사야서
- 1550년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도서 [기독교 강요 개정 4판]
- 1551년 공동서신,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이사야서(구약성경의 첫 주석)
- 1552년 사도행전 제 1권(1-13장)
- 1553년 요한복음, 창세기(재출간)
- 1554년 사도행전 제 2권(14-28장), 창세기
- 1555년 공관복음서(마태-마가-누가복음; “복음서들의 조화”란 세 권의 이름으로 주석 출간)
- 1556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고린도전서(개정판)
- 1557년 시편, 호세아서 강의집
- 1559년 소선지서 강의집, 이사야서(개정판) [기독교 강요 개정 5판 최종판]

1560년 사도행전(개정판)

1561년 다니엘서 강의집, 시편(개정 불어판)

1563년 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이상, “율법의 조화”란 한권의 이름으로 주석 출간),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 강의집

1564년 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개정 불어판), 여호수아서(사후 출간), 에스겔서(1-20장) 강의집(사후 출간)

칼뱅은 1540년 3월, 나이 31세 때 자신의 첫 성경주석서인 로마서를 출간하였다. 이 당시는 칼뱅이 제네바에서 추방당해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물 때였다. 그는 이곳에서 7개월 전 자신의 「기독교 강요」 제2판을 이미 출간하였다. 그러나 1541년 9월 칼뱅이 다시 제네바로 귀환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면서 그는 제네바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 강의와 더불어 성경 강해설교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였다. 제네바로 귀환한 이후 칼뱅은 매년 170번 이상을 설교했으며, 23년간의 사역 동안 4천 번 이상을 설교했다. 실제로 1548년(39세)부터 사망하던 1564년(55세)까지 거의 매년마다 성경주석서가 출간된 배경에는 그의 열정적인 성경 연구 및 강의를 있었다. 이런 점에서 칼뱅의 성경주석서와 강해설교는 분리될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 칼뱅에게 성경주석은 설교의 뿌리였으며, 성경강해는 설교의 열매였다. 그렇다면 칼뱅의 성경해석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칼뱅이 집필한 성경주석서들에서 나타나는 성경해석의 직간접적인 특징 또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간결성과 용이성을 통한 성경 저자 의도가 전달되어야

칼뱅은 첫 주석인 로마서 주석(1540년)에서부터 자신의 성경 주석 방

법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석의 간결성과 명료-용이성, 그리고 성경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의 친구이자 히브리어 교수였던 시몬 그리네우스에게 헌정한 로마서 주석 헌사에서 갈뱅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 둘이 생각했던 해석자의 주된 목적은 분명한 간결성(*perspicua brevitate*)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설명할 저자의 의도(*mentem scriptoris*)를 밝히는 것이 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가 저자의 의도로부터 벗어날수록 더욱 더 그는 자기의 목적을 벗어나서 그의 목표로부터 방황할 것입니다. ... 우리는 표현의 용이성(*facilitati*)을 위하여 노력하며, 동시에 장황한 주석(*prolixis commentariis*)을 갖고 독자들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간결성을 사랑하는 것에서(*amore compendii*)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갈뱅의 성경해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글쓰기의 간결성과 명료-용이성(*brevitas et facilitas*)에 의한 성경 저자의 의도를 독자들에게 밝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 당시 신학자들의 글쓰기와 차별된 것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용이하고 적합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글쓰기는 갈뱅의 모든 주석서에서 나타나는데 불필요한 논의를 최대한 줄이면서 성경 본문에만 집중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갈뱅의 성경해석 방식은 오늘의 신학자와 설교자에게 많은 고민과 반성을 가져다준다. 오늘날 신학교의 성경 과목들의 강의는 신학자들의 학설과 견해 소개에 앞서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해설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회 강단의 메시지는 무엇보다 성경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의미를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전달됨으로써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성경 원어에 따른 역사-문법적 해석에 기초해야

또한 깔뱅은 히브리어와 헬리어 성경 원어에 따른 단어와 문장의 문법적 이해와 문맥과 역사적 배경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에 기초해서 깔뱅은 납득할 만한 분석에 근거한 성경해석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깔뱅은 성경의 가정이나 1세기 유대 문헌(예, 요셉푸스, 필로)도 틈틈이 활용하면서 성경을 주석하고 있다는 점도 관찰된다. 나아가 깔뱅은 디도서 주석(1550년)에서 밝히기를 고대 및 현대 이교도(비기독교인)의 저술을 인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신적이라고 하면서 성경 주석가(설교자)들은 이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런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한다고 했다.

이교도 저술가들의 글에서 어떤 것도 인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신적이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비록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더라도 그것이 적절하고 진실한 것이라면 결코 배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발원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다면 왜 이것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되는가?

이런 점에서 깔뱅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의 고유한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역사적 문서로서 성경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일반 학문과 상식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였다. 이것은 깔뱅이 그 당시 인문주의의 후예로서 그의 성경해석에 인문주의의 영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의미 있는 것은 깔뱅이 인문주의의 노예가 아니었으며, 선배 개혁자들의 성경해석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깔뱅은 루터(C.O. 39:36), 멜랑히톤(C.O. 38:131), 부처(C.O. 38:40), 쾰빙글리(C.O. 39:36) 등과 같은 앞선 개혁자들의 성경해석 방법을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배우면서도 그들의 단점이나 한계를 극복하고자 힘썼다.

오늘 우리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서재에 가장 우선적으로 자리 잡혀야 할 것은 성경 원어를 다루면서 본문을 해설해 주고 있는 주석서들이어야 한다. 갈뱅의 주석서가 오늘날도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이 갈뱅의 주석이기 때문이 아니라 갈뱅의 주석에는 성경 원어에 기초한 책임 있는 해설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학도들은 성경을 풍성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상식과 인문학에도 깊은 공부를 쉬지 말아야 한다. 이런 폭넓은 독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귀한 접촉점을 갖게 해주며 성경을 더욱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큰 활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조명 아래

그러나 무엇보다 갈뱅에게 성경 주석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석학적 전제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권위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에게 미치는 성령의 조명이었다. 갈뱅에 따르면 성경의 권위는 성경 그 자체의 신적 기원에 의한 것이다. 성경의 신적 기원과 권위에 대해 갈뱅은 “마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처럼 성경을 하늘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생각할 때에만 비로소 그 성경은 신자들에게서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강요 1.7.1) 고 말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주석하면서 갈뱅은 성경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분리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성령의 권위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inspiratam*)되었다고 선언한다. 이는 만일 성경이 그렇다면 사람들이 경외함으로 그 성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기 때문이다. ... 율법과 선지서들은 인간의 뜻과 의향을 따라 전달되어진 가르침

(*doctrinam*)이 아니라 성령이 구술하여 받아쓰게 한 것(*dictatam*)이다. ... 모세와 선지자들은 신적인 충동(*Dei impulsu*)에 의해 말했으므로 사실상 말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와의 입이었다(*os Domini loquutum esse*)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증거했다. ...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표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경외를 성경에 표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그 분에게서만 나왔으며, 그리고 그것에 그 어떤 인간적인 것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nec quicquam humani habet admixtum*).

이런 성경의 자증적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갈뱅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따라서 갈뱅에 있어서 성경의 진정한 해석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Spiritus Dei solus est verus eius interpres*)이며, 성경은 성령의 학교(*Scriptura schola Spiritus sancti*)이다. 즉, 성령의 조명이 없는 독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성도는 성령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을 배우는 자들이며, 성령은 성도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의 선생이다. 그렇기에 갈뱅에게 있어 성령의 역사는 곧 말씀의 역사이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cum verbo*) 또는 말씀을 통하여(*per verbum*)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갈뱅이 성령의 신학자로 오래전에 인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성경해석학적 차원에 있어 갈뱅은 성경해석의 객관성을 중요시 하며 이에 따른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역사-문법적 연구), 해석자에 따른 성경해석의 주관성(성령의 조명)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기 이전에 성경에 대한 우리의 경외감과 사랑고백을 진지하게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며 설교하되, 이에 앞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신학도인지를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의 신학 강의와 목회 설교가 성령의 주도적인

영향력 아래 시작되고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더욱 의탁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더욱 기뻐해야 한다.

신구약 성경에 대한 유기적 통일성 속에서

칼뱅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신구약 성경 통일성에 대한 인식 속에서 예인과 성취 내지 그리스도의 빛 아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주석의 특징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주석적 특징의 배후에는 구약계시와 신약계시 간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칼뱅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모든 징벌 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형과 실례라고 설명한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신약 성도들의 모습을 예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구약성경에는 교회의 본질이 이미 거기에 내재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구약교회에 주어진 약속들은 이것들 안에 이미 복음이 포함된 방식으로 복음을 묘사하고 있었다.”고 함으로써 칼뱅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루터보다 더욱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편으로 베드로전서 1장 10-11절을 주석하는 중에 칼뱅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원과 관련하여 신약성경의 계시가 구약성경의 계시보다 더욱 온전하고 우월한 것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는 자들로서 이들의 예언이 성취된 때가 바로 신약성경의 계시시대임을 잘 풀이해 주고 있다.

국내에서 성서학의 발전 가운데 구약학과 신약학 제 분야의 학문적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게 전문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성서학자들은 해마다 그 수를 더해 가고 있다. 참으로 한국 교계에 큰 재산과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성서학 분야의 전문성과 학문성이 드러날수록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통전적 이해와 적용은 더 멀어지는 듯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신학의 제 분야들이 각각 너무 단절되어 있는 것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상호 간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된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된다.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신구약 성경이 함께 읽히고 함께 연구되면 좋을 것 같다. “반쪽자리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성경을 골고루 연구하고 설교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구약 성경의 구원계시 역사의 흐름을 균형 있게 잡고 해석함으로 복음의 통전성과 종말론적 의미를 잘 적용해야 한다.

교회의 전통적 해석을 배우고 발전시키면서

한편 갈뱅의 주석에는 교부들(예, 크리스소스톰, 어거스틴, 제롬, 암브로스)의 성경해석이 긍정-부정적으로 자주 인용 및 소개되고 있다. 또한 종교개혁 선배들의 입장도 직간접적으로 소개되는데, 예를 들면 루터, 멜랑히톤, 불링거, 부처가 있다. 실제로 갈뱅은 이들의 성경해석 방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갈뱅은 이들(특히, 루터와 관련해서)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경우, 주석서에서 이 사실을 스스럼없이 소개하면서 자신의 해석의 타당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멜랑히톤의 성경해석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와 관련된 본문을 요점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갈뱅은 로마서 주석에서 멜랑히톤의 학문성과 성실성을 높이 인정하면서도 그의 성경해석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멜랑히톤은 성경의 흐름을 따르기보다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편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갈뱅은 멜랑히톤의 성경해석을 주석적이기보다

는 교리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런 점에서 깔뱅은 교부들과 선배 종교개혁자들의 성경해석의 전통을 존중하되, 성경 자체의 언어 문법적이고 역사 배경적 이해를 기초로 연구한 자신의 성경해석이 이들과 다를 경우, 과감하게 자신의 해석을 설득력 있게 독자적으로 주장하곤 한다. 분명 깔뱅은 교부들의 제자로서 교회의 전통적 해석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깔뱅에게 더욱 집중되었던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였다.

오늘 우리가 깔뱅의 성경해석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그의 중도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분별력이다. 그가 비판한 것은 ‘성경으로부터 탈선된 교회’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교회의 전통’이었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거룩한 교회의 전통 그 자체는 아니었다. 또한 깔뱅은 동일한 본문 또는 주제에 대한 성경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자의 겸손과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깔뱅의 성경해석을 관찰하는 것은 깔뱅이 해석한 성경주석을 공부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 이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배우기 원하는 것은 깔뱅이 성경을 사랑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고난의 황무지 속에서도 쉼 없이 성실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여 바른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원했던, 하나님을 향한 깔뱅의 뜨거운 마음과 헌신이다. 깔뱅의 성경주석서들 가운데 아쉬운 점 하나를 언급한다면, 성경 메시지의 조화에 너무 치중하는 가운데 성경 각 권(예, 구약의 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 신약의 마태-마가-누가 복음)의 독자적 위치와 메시지의 특징이 아쉽게도 온전하게 주석되지 못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깔뱅의 시대와 깔뱅의 생애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그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보다는 그가 그런 험난한 삶 속에서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prompte et sincere) 그의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한 것에 대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부끄러워지는지 모른다.

55년의 생애를 살면서 고난과 외로움과 오해로 점철된 22년간의 분주한 목회 사역 속에서도 해마다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성경 주석서들을 집필하고 출간했던 그 사람.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따라 그렇게 목회하면서 살기를 끝까지 힘썼던 그 사람. 그 사람 꺾병의 하나님 사랑, 성경 사랑, 교회 사랑의 열정과 희생이 조국의 장로교 목회자와 신학자인 우리로부터 더욱 새롭고 또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된다.

:: 허주 한국외국어대학교(B.A.)와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Div.)를 나와 영국 Sheffield University(Ph.D.)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구했다.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신약학 교수로 있다.